

## 취업 기혼여성, 그녀가 인지한 가계경제 변화의 의미

김 경 자(가톨릭대학교 교수)

기혼 취업여성을 대상으로 하여 취업으로 인한 소득과 소비지출상의 변화를 파악한 연구는 연구자가 지적한 바대로 어느 정도 축적되어 왔고 또 어느 정도 공통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즉 기혼 취업여성의 소득은 가계소득의 약 30-40% 정도를 차지한다는 것, 취업으로 인해 외식비나 의류비, 교통비 등의 부분에서 소비지출이 늘어난다는 것, 그러나 증가한 소비지출을 감안하더라도 취업소득은 양의 값을 갖는다는 것 등이다.

본 연구는 사실상 객관적인 수치보다 취업한 기혼여성과 그 배우자가 느끼는 경제적 기여도와 만족감을 측정하고 실제로 객관적 기여도와 주관적 기여도를 비교하려 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사실 많은 다른 행동과 마찬가지로 취업여성의 소비행동은 객관적인 소득의 액수나 기여도보다 자신이 소득과 기여분에 대해 어떻게 의미를 부여하는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가령 같은 소득이라 하더라도 그 기여분에 대한 본인과 타인(예를 들어, 남편)의 인지가 다르기 마련이고 본인의 인지도 그 자신의 여러 특성(교육수준이나 남편의 소득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다. 따라서 '사실(Fact)'보다 '인식(Perception)'을 파악하는 것이 기혼 취업주부들을 대상으로 상품을 기획하거나 판매하는 사람들에게는 더 중요한 정보가 될 수 있다. 또한 본고의 조사대상자가 초등학교 이하 자녀를 둔 주부이므로 이들의 취업에 대한 인식이 취업을 계속할지 말지를 결정하게 한다는 점에서 기혼여성의 취업정책을 입안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런 점에서 기혼 취업여성에 대한 기존의 연구결과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조사자료를 수집하는 절차와 방법에 대한 설명이 상세하지 않고 또 조사대상이 고학력 중상층의 집단에 치우쳐 있어 전체 취업여성에 대한 대표성을 상실하고 있다는 점에서 아쉬운 부분이 있다. 우리나라의 기혼 취업여성은 저소득층인 경우가 훨씬 많고 따라서 취업동기도 자아실현이나 능력발휘보다는 경제적 여유확적이 우선인 경우가 많으므로 연구결과를 전체 기혼 취업여성의 경우로 일반화하는 데는 다소 문제가 있다고 본다.

또한 부분적으로 소득이 소득효과에 대한 설명에 논의의 여지가 있는 곳이 있다. 가령 시간제 취업주부의 가계소득이 전일제 취업주부의 가계소득보다 높은 것을 소득이 많은 집단은 노동동기가 약해서 취업시간이 짧다는 신고전주의 경제학의 소득효과로 설명하고 있는데 이는 전체 가계소득이 아닌 배우자의 가계소득만을 가지고 설명해야 할 부분이라고 본다. 또한 같은 논리라면 비취업주부 가계의 소득은 시간제나 전일제 가계의 가계소득보다 높아야 하는데 이 자료에는 나와있지 않으나 실제 비맞벌이 가계의 가계소득은 맞벌이 가계의 소득보다 낮은 것이 일반적이고 따라서 가계소득이 높으면 취업시간이 짧아진다는 (그래서 시간제취업주부의 가계소득이 더 많다는) 논리

를 그대로 적용하는대는 무리가 있다.

어쨌거나 조사결과를 보면 조사대상자인 주부나 그 배우자들이 인식하는 기여도는 실제 객관적인 수치로 나타난 기여도와 크게 다르지 않음을 볼 수 있다. 또한 취업으로 인한 경제적 기여수준에 대한 주부들의 만족도와 이에 대한 배우자(남편)의 의미부여 수준은 실제 기여도보다 훨씬 높게 나타난다. 다시 말해 기혼여성들이 취업으로 인해 가계에 경제적으로 보탬이 되는 정도가 그리 크다고 보지 않더라도(여기서는 총가계소득의 43%정도임) 많은 부부가 그것이 가계에 보탬이 되고 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느낀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취업으로 인해 소득이 증가하는 만큼 소비지출이 증가하더라도 경제적으로 순소득이 크지 않아 취업이 무의미하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다.

또한 취업주부들이 취업을 안했을 경우 여러 품목에서 소비지출이 감소했을 것이라고 느끼면서도(이는 실제의 경우도 그러하다) 가전제품이나 가정기기 부분을 더 구매하지는 않게 된다고 한 것에 대해 숙고해볼 여지가 있다. 취업을 하면 왜 외식이나 배달음식을 더 소비하고 교통비와 의복비에 더 돈을 쓰면서 가전제품에는 그렇지 않은가? 흔히 주부의 가사노동 대체재로 간주되고 있는 여러 대안 중 주부의 노력과 가사노동 시간을 감소시켜주는 가전제품에 대한 수요가 여성취업과 무관하다는 것은 좀 더 연구를 요하는 부분이다. 가정에서 보내는 시간이 줄면서 아예 가사에 대한 수요 자체가 감소하는지? 아니면 아직은 가사노동을 대체할 인건비가(가사도우미이든 친정어머니 등의 가족이든) 다른 것에 비해 상대적으로 값싸게 여겨지는 상황타인지, 그렇다면 가전제품이나 가정기기의 특성은 어떠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 추가적인 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